

# 조선조 최초의 동활자 '계미자'

1403년에 주조 ... 독일의 《42행성서》보다 반세기 앞서

고려시대 금속활자 인쇄기법의 '노하우'는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그대로 이어져 국초부터 각종 동(銅)활자나 납(鉛)활자가 잇달아 개발되고, 그에 따라 근세의 출판문화는 더욱 성황을 보이게 된다. 그 스타트를 끊은 것이 이른바 '계미자(癸未字)'로 알려진 동활자다.

개국초에 태조 이성계는 고려 공양왕 때 설치된 서적원(書籍院)을 그대로 살려 각종 서적을 찍어내게 하는데, 이때 금속활자를 만들어 쓴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나무활자로 명나라의 형법전인 '대명률(大明律)'을 풀이한 《대명률직해》 100부를 찍었음이 기록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목활자인쇄는 여러모로 비능률적 이어서, 태종(이방원)은 즉위 3년째인 1403년 남산 기슭에 주자소(鑄字所)를 설치하여 동활자 수십만자를 주조케 한다. 이것이 곧 계미년에 만들었다 해서 '계미자'로 불리는 조선조 최초의 동활자인데, 바탕글자로는 대체로 《춘추좌씨전》 등을 이용했다. 이때 만든 '주자소'는 서울 중구 관내에 주자동이란 동명으로 남아 있다.

이 계미자는 고려말에 사찰(청주 흥덕사)에서 만든 금속활자로 찍어낸 《불조적지심체요절》(1377)에 비해 글자풀이 고른 편이긴 하지만, 크기가 너무 크고 일정치 않은 결점이 있었다. 그래서 17년만인 1420년(세종 2)에 종래의 계미자를 대부분 녹여서 새로운 활자(경자자)를 만들게 된다. 그랬기에 이 계미자로는 그다지 많은 책을 찍어 내지



계미자로 찍은 책들. 《신실사천고금통요》(국보 148호·왼쪽)와 《동래선생교정북사상절》(국보 149호).

**계미자'는 크기가 크고 일정치 않은 결점이 있어 17년만에 폐기된다. 따라서 계미자로 찍은 책은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사용국임을 더욱 확실하게 실증해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못했다.

현재 계미자본으로 남아 전하는 책은 《동래선생교정 북사상절(北史詳節)》(국보 149호)과 《십칠사(17史)찬 고금통요》(국보 148호)를 비롯, 열손가락에도 못미친다. 앞의 책은 원래 민속학자 송석하(宋錫夏·1904~1948)가 소장했던 것으로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에 있고, 뒤의 것은 고고학자 김원룡(金元龍·1922~1993)의 손을 거쳐 서울대 도서관에 간직돼 있다.

이들 계미자본의 가치는 그것이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과도기의 활자 주조기술이나 조판기술의 발달과정을 연구하는 데는 물론, 우리나라가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사용국임을 더욱 확실하게 실증해주는 귀중한 자료라는 사실이 있다.

지금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에 있는 《불조적지심체요절》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들 계미자본만으로도 구텐베르크보다 40여년이나 빠르고, 유명한 《42행성서》(1455년경)보다는 반세기 이상 앞선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여담이지만, 구텐베르크의 《42행성서》는 본문의 1~9페이지는 40행, 10페이지제는 41행, 그 이후는 42행으로 되어 있다는 데서 그렇게 불린다. 인쇄부수 185부 가운데 35부는 송아지기죽에 찍은 것인데, 이를 위해 6천마리의 송아지가 소모됐다고 한다. 이 《42행성서》는 현재 미국에 14부, 독일에 11부, 영국에 8부, 프랑스에 4부 등 전세계에 모두 47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

# 출판저널

통권 제211호/1997년 4월 5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환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연  
 기자 — 박남정 마정미  
 최성일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딱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Human ART

표지 디자인

Tel 3445-0682.3/512-4844 Fax 543-1624

광고 디자인

카드로그

사보기획 / 제작

편집 디자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80-3 금호B/D 3F

GOOD DESIGN GOOD PARTNER

소박한 심정에, 소신껏

표지디자인



표지에 관한 스트레스 —  
 이제는 저희에게 맡겨 주십시오  
 전화부터 주시면 대행관계자료를  
 팩스로 보내 드립니다.

**양무리**  
 출판미술의 모든 것

TEL 267-0396, 272-8097

표지 고민?

디자인 예원이 있습니다  
 T. 548-5420,  
 F. 3444-1515



표지디자인, 광고디자인, 정기 간행물 등  
 출판과 관계된 모든 작업  
 ... 디자인 예원